■고구려硏 '발해문화 국제학술대회'

잊혀진 나라 발해 '조명'

한·중·일·러 학자 2백여명 참석

발해 건국 1천3백주년을 기념, '잊혀진 나라' 발해를 집중 조명한 발해문화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발해의 유물·유적, 문화 등 발해사 연구에 다양한 입장이 제기됐다.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는 11~1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내·외 불교학자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해문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해의 불교와 불상'으로 발제에 나선 정영호 교수(한국교원대)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함과 동시에 모든 문물을 전승함으로써 건국 초기인 7세기 말~8세기 초에는 고구려의 불상 양식이 전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경성에서 출토된 불상은 융성기인 8세기 것으로 당나라 불상의 양식과 수법을 느끼게 하고 있어 초기의 고구려적인 요소와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교수는 발해불상의 특징에 대해 "발해 전기인 9세기 초반까지는 당의 양식이 어느 정도 수용되었으나 9세기 중반 이후 부터는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형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경대 소장 발해불상의 현상과 성격'에서 임석규 교수(동국대)는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전시중인 발해 동경성 출토 '이불병좌상' 연구를 통해 "이불병좌상의 가장 큰 형식적 특징은 독자성과 다양성"이라며 "기본적인 형식에서 같은 도상이나 중국의 상과는 다른 고구려의 불상 조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경용천부와 새로 발굴된 사리함(김태순·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등 총21편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원효스님의 원융회통사상 21세기 정보시대 가치기준"

이어령교수 주장

"원효스님의 원융회통(圓融會通) 사상은 21세기 정보문명시대의 대러다임 변화를 함의하고 있는 가치체계다."

'아시아적 가치는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4일 열린 한백연구재단(이사장 이창우) 국제심포지움에서 이어령 교수(이화여대 석좌교수)는 '21세기 문명과 원융회통'을 통해 '원융회통' 사상이야말로 21세기 정보시대를 열어갈 '키워드'라고 제시했다.

이교수는 "원(圓)은 서로 다른 가치의 조화와 균형으로, 서구의 가치체계를 각기 다른 가치가 평행적인 것으로 분할돼 있는 '삼색기'에 비유한다면 동양의 가치체계는 각각의 가치가 서로 어울려 원형을 이루고 있는 '삼태극'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융(融)은 만물일치의 융합사상으로, 오늘날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근대국가의 자유·평등 이념으로는 세계의 보편주의를 실현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회(會)는 계약의 믿음보다는 신뢰를 가장 중요한 문화의 덕목으로 보는 동양적 가치"라며 "21세기 사이버 스페이스 환경에서 계약의 세계와 신뢰의 사회는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通)에 대해 이교수는 "인간·세계·자연 사이의 소통으로, 유교문화의 '인(仁)'과 비슷하다"며 "광섬유·위성통신 등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보사회가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자기와 타자, 그리고 우주를 함께 생각하는 '인'과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제심포지움에서는 동양사상이 동·서양 화합과 새로움 밀레니엄 준비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토론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과 동아시아적 가치관'에서 라오거핑 교수(북경대 법학과)는 "최근 깊어진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곧 문명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동아시아 현대화의 뿌리가 된 심오한 전통문화는 지금까지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동아시아적 가치관을 형성, 발전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멍시 소장(중국문화연구소)은 '세기말의 도전:아시아적 가치의 과거와 미래'에서 "현재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시아적 가치에 위기가 발생했다기 보다는 아시아적 가치가 도전을 맞은 것으로 본다"며 "현대화 목표의 실현에 따라 아시아적 가치는 진일보한 전개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의 역사문화 가치에 관하여'에서 미소구치 유우조오 교수(일본 대동대)는 "근대 서양의 거울에 비친 동아시아의 모습은 동아시아의 문화를 서구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편견·차별 등이 존재한다"며 "아시아적 가치는 아시아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역사문화 가치를 발견하고 자각할 수 있"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여성운동

지구촌 여성불자 활동 등 소개 개설 1년만에 1만여명 '클릭'

자유 분방한 사이버 세계, 이곳에서 여성불자들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탐험하고 그들의 활동을 소상이 열람한다면 네티즌 우바이들은 여성과 불교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지난해 초 개설된 '불교여성운동(Women Active in Buddhism)' 사이트는 일년 남짓한 기간동안에 무려 1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각광받는 곳이다. 또 이 사이트는 미국인 여성불자 쥴리아 밀톤이 인터넷에서 우수한 정보를 제공하는 불교 홈페이지를 선정, 수여하는 '달마링'도 받았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여성불자 수계식 및 캠페인 △유명한 여성불자 △경전 속의 여성 등이 있다.

△상좌부 여성 작가에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이름과 작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품도 압축된 텍스트 파일로 마련해 놓고 있어 다운로딩(가져오기)이 가능하다. 이중에는 80년대 미국의 서점가를 강타했던 릴리 디 실비아교수(美 펜실바이아대 불교학)의 〈세상에 남긴 발자국〉을 비롯해 실비아 부르스타인의 〈파라미스(Paramis)〉, 칸다시리스님의 〈끝없는 사랑〉, 엘리자베스 헤리스의 〈불교를 배우자〉 아웅 산 수지의 〈명상과 회생〉 등 40여권이 소개되어 있다.

△유명한 여성불자에서는 학술·문화계 여성불자, 상좌부·금강계·선불교 등으로 구분해 스님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에는 스코틀랜드에서 불교의 꽃을 피웠던 아야 케마스님도 소개받을 수 있다. 케마스님은 87년 세계비구니 대회를 개최해 당시까지 가부장적이었던 각국의 승단을 놀라게 했다. 케마스님은 이 대회를 계기로 '부처님의 딸들(사카야디타)'라는 국제 여성불교단체를 결성했다. 케마(Khema)란 안정과 평온을 뜻하는 빨리어. 이외에도 30여명의 여성불자들을 소개하고 '메일보내기' 서비스를 제공, 불자 네티즌들이 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전 속의 여성은 담마디나 등 부처님의 여성 제자들의 삶과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에서는 여성 제자들이 경전에서 보인 성격, 행동 등을 현대로 옮겨 놓고 소설처럼 새롭게 구성한 인물 평전도 열람할 수 있다. △여성불자 수계식에서는 범어와 팔리경전을 토대로 사미니계와 비구니계를 설명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여성의 눈에 비친 불교〉 〈고독한 도반〉 등 수계와 여성 관련해 20여권의 서적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구니로서의 삶' '티벳여성 보고서' 등 여성불자 관련 각종 연구서들도 소개한다.

△부처님의 여성성에서는 티벳불교계의 여러 불상과 탱화중에서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다. 에카자티(Ekajati), 쿠루쿨라(Kurukulla) 등 28종의 불상이 소개된다. 에카자티는 티벳불교계 닝마파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부처님으로 추앙받고 있다. 에카자티의 모습은 하나의 머리, 눈, 입, 가슴을 등으로 구상되어 있다.

http://members.tripod.com/~Lhamo/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술단신

'문화재 보존과 활용' 국제학술심포지엄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심포지움이 18~19일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열린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윤식)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심지움에서는 유형·무형문화재와 관련, 총 10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중·일 전통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한병삼(동국대 석좌교수), 목정배(동국대 명예교수), 박범훈(중앙대 교수), 조유전(국립문화재연구소장), 공상성(중국 국립역사박물관 부관장), 우치다 히로야스(나라국립박물관장) 등이 참석한다. (02)260-3606

미술사학회 월례발표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김리나)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고구려 다각탑에 나타나는 의례적 요소(강병희·정신문화연구원) △조선시대 감로탱에 나타난 풍속화(이경화·홍익대) 등 3편이 발표된다. (02)884-0271

새문명아카데미 '밀레니엄 대학' 개설

(사)새문명아카데미(이사장 송희식)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밀레니엄 대학'을 개설한다.

새로운 2천년을 앞두고 밀레니엄의 의미와 정치·경제·문화·환경적 변동을 살피며, 이를 토대로 오늘의 한국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명창조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밀레니엄 대학에서는 '밀레니엄의 의미와 각국의 움직임'(김영수·순천향대) '밀레니엄과 환경재앙, 그리고 에너지 위기'(이향규·환경운동연합) '밀레니엄과 서구문명의 대전화'(이원호·신한종합연구소) '밀레니엄시대의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사회적 실험'(김찬호·연세대) 등을 주제로 13회 강연이 준비됐다.

강좌는 9월15일부터 10월29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개설된다.

송희식이사장은 "새로운 2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동·서양의 문명전환과 세계 각국의 개혁정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대안 문화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47-5982

오종욱 기자

중도-방편의 변증법 중용-유기체 평형원리

김수중교수, 현대적 재해석

'중도(中道)'와 '중용(中庸)'을 통해 유교와 불교의 본질과 그 사유방식의 핵심을 파악하고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주최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제4차 세미나에서 김수중 교수(경희대 중국철학)는 '중용과 중도: 두 가지의 사유 패러다임'을 통해 "중도는 방편(方便)의 변증법으로써 선(禪)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인도적 사유의 패러다임, 중용은 유기체의 평형의 원리를 모델로 하는 중국적 사유의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우리 것'이니까 살려야 한다는 고집보다는 현대문명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대안의 모색 과정에서 '동양적인 것'이 재해석되고 다시 요구되어짐을 의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를 '방편적 변증법'이라고 규정한 김교수는 그 의의에 대해 △무한과 절대의 문제에 접근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논리 △사회적·종교적인 것, 세속적·성스러운 것에 대한 일체적 경향 △현실적 수행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도약의 수단 등으로 설명했다. 또 '중용'의 '중(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적합하고 바르게 달라질 수 있는 '시중(時中)'의 사상이라는 것.

김교수는 "중도와 중용에 대한 비교는 역사적으로 차이점을 강조한 논쟁과 절충 가능성을 모색한 조화론이 있었으나 지금은 현대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한 때"라며 '중도'를 '권위주의에의 거부'로, '중용'을 '유기적 관계성의 회복'으로 재음미했다. 김정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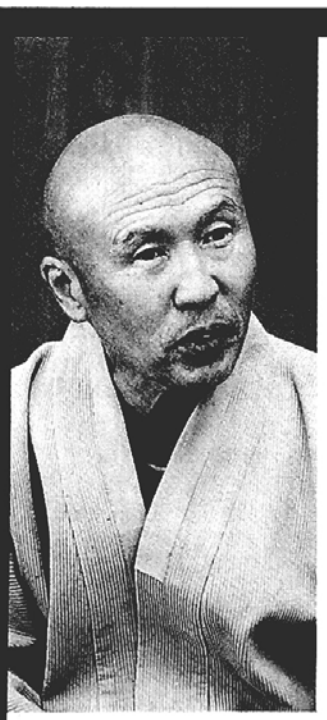
국제소식

美 캘리포니아 교도소 '종교활동 자유로운 곳'

미국 교도소 중 종교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도소들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밝혔다.

총 33개의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는 기독교 뿐만 아니라 불교도·이슬람교도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새크라멘토 교도소의 경우 수행실·기도실 등 신앙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채식과 같은 특별 식단도 제공하고 있다.

이 곳에서 4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윌리암 로서(40)는 "교도소에서 개인적인 명상을 위한 소도구도 허가받아 소지할 수 있어, 사회에 있을 때보다 불교에 더욱 친숙해졌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우룡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기도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절을 하는 횟수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을 잘 모아 염(念)을 하고 정성을 다해 한배 한배 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믿음의 주춧돌을 견고히 놓아, 일어나는 번뇌를 좇아가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값 7,0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